

지역 대학들 “등록금 인상 고민되네”

조선대 동결·교과부 “재정지원 연계”

경영난 우려 ... 주변 대학들 눈치보기

조선대가 광주·전남 대학 중에서는 최초로 2010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데 이어 수도권 일부 대학이 잇따라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지역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지난 해에는 경제 위기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 동결에 따른 예산 압박 및 자연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리

지 않을 경우,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기가 다소 나아진 점이 등록금 인상에 대한 ‘유혹’으로 작용하고 있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조선대는 최근 학교 정상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서울여대 등이 등록금을

올려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한결같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서민 경기를 고려했으며, 사회적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 사립대들은 동결과 인상에 따른 예산 운용을 예측해보며 타 대학들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특히 사립대들은 정부가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반 강요(?)하는 상황과 경영난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이라는 대학 내부 입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최근 정문환 국무총리가 대학교육 협의회에서 자발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데다 올해 초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재정 지원

사업과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한다고 발표한 것도 부담이다.

A대학은 지난 해에도 2~5% 정도 등록금을 올리려다가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동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른 등록금 감소분은 무려 20~50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다면 긴축 재정만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주변 대학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약학대학 유치에 신경해놓은 B대학도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이 약대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대학 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등록금을 동결할 경우 인상에 비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을 넘는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2년 연속 동결할 경우 어려움이 크지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해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난 3일 무등산 장불재 대피소를 찾은 등산객들. 이번 연휴기간에만 1만여명이 이용했다. /위정림기자 jrwi@

무등산 장불재 대피소 인기

신정 연휴 3일간 1만여명 찾아

지난 1일부터 3일간 해맞이 등을 위해 무등산을 찾은 수만 명의 시민들이 지난해 광주시가 장불재에 설치한 대피소 ‘덕’을 톡톡히 봤다. 장불재 주변은 큰 나무가 없어 그늘이 없고, 기상악화 시 대피할 시설이 없어 그동안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 시와

무등산관리사무소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천2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해 9월 말 장불재에 면적 71㎡의 대피소를 지었다.

최대 1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이 대피소는 이번 연휴기간 운수까지 제공돼 노약자나 여성들이 잠시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정소정(여·47·동구 계림동)씨는 “무등산 일출을 보러왔다가 들었는데 외관 디자인이 무등산과 잘 어울리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어서 기뻐했다”고 말했다.

무등산관리사무소는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오르내렸던 1일 새벽, 해맞이를 위해 찾은 3만 여명 등 1일부터 3일까지 6만5천여 명이 무등산을 찾았으며, 이 중 1만여 명이 장불재 대피소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조선대 옛 경영진

정이사 후보 2명 추천

조선대학교가 21년 만에 정상화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옛 경영진(종전 이사)인 정에리사·박성섭씨가 미션 임팩트 정이사 2명의 후보를 최근 추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성섭씨가 추천한 인사는 주광일 전 서울고검장과 고광삼 전 조선대 의대 교수 등 2명이다.

교과부가 구립 31일 정이사 9명중 7명을 선임한 가운데, 조선대가 나머지 2명의 이사에 종장·총동장회장을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학과 옛 경영진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환경모니터 요원

광주시, 3배 확대

광주시가 올해 자동차 매연, 폐기물, 악취, 수질오염, 소음 등 지역 환경분야를 점검하고 환경신문고에 신고하는 모니터 요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66명이었던 환경모니터 요원 정원을 올해 200명으로 늘리고, 재래시장상품점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액수도 기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환경 분야 모니터를 강화했다. 이는 2010 광주주 광엑스포는 물론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깨끗한 광주’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1월까지 시에 접수된 환경 관련 신고는 모두 2천393건으로, 이중 자동차 매연이 2천17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폐기물(88건), 악취(28건), 수질오염(24건)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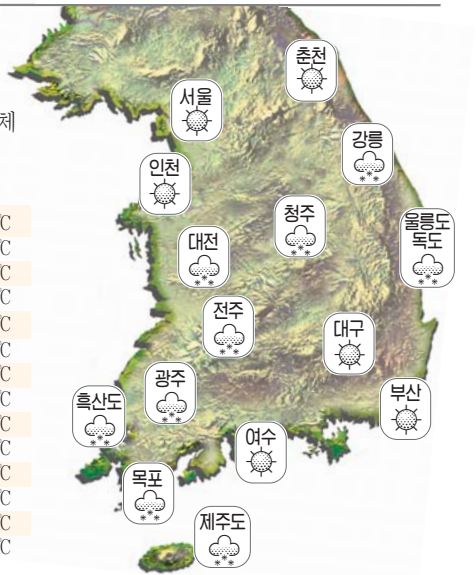
/윤현석기자 chadol@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1분 해질 17시 34분 달돋이 22시 55분 달짐 10시 34분

소한 한파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겠다.



광주	흐리고 눈	-4/0℃
목포	흐리고 눈	-3/1℃
여수	맑음	-2/1℃
완도	흐리고 눈	-2/1℃
구례	흐리고 눈	-4/1℃
해남	구름 많고 눈	-3/0℃
장흥	구름 많고 눈	-3/0℃
고흥	구름 조금	-2/1℃
순천	구름 많고 눈	-3/1℃
영광	흐리고 눈	-4/-1℃
진도	구름 많고 눈	-2/1℃
전주	흐리고 눈	-5/-1℃
남원	흐리고 눈	-5/-1℃
목성도	흐리고 눈	-1/0℃

〈오전〉 바다	중랑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관심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오후〉 바다	중랑	파고	일몰	일출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목포 05:12	10:22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여수 12:24	05:57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18:28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6(수)	7(목)	8(금)	9(토)	10(일)	11(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5/10	-6/1	-6/3	-4/4	-4/4	0/3

전교조 사상 최대 중징계

홍성봉 전남지부장 등 14명 해임

‘교사 시국선언’ 주도 이유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최근 시국선언 주도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완료했으며, 일부 교육청을 제외하면 당사자 통보

도 끝났다”고 4일 밝혔다. 광주, 전남, 전북 등 3곳은 이미 징계의결이 완료됐지만, 해당 시도교육감의 최종 결재와 당사자에 대한 통보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징계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89명 중 14명이 해임, 41명이 정직 1~3월의 중징계, 1명이 감봉 3월의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광주·전남에선 홍성봉 전남 지부

장이 해임을, 나머지 간부 3명은 징계에 결정이 내려졌으며, 김성섭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 등 전임자 3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전교조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징계 사태가 현실화된 것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2007년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벌였을 때 192명이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중징계를 받은 노조원은 없었다. 전교조는 교육당국의 이번 대규모 징계 처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어서 징계를 둘러싼 쟁점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개관 5주년 기념 고객 사은 축제

● 행사기간 : 2010. 2. 28까지

객실료 110,000 (중저가세우니고 포함) **레스토랑 10+5% 할인 이벤트** (한식부채기)

● 상단 불꽃의 T.미. 02-2228-0000

AT 농수산물유통공사

믿음이 더 큰 내일을 만듭니다!

AT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최고의 유통망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최고의 유통망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최고의 유통망